칼 럼

#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자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삽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겼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신 수난과 고난의 인동초 인생은 85세를 일기로 2009년 8월 18일 서거하셨다.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가치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도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치가 되므로 행동함으로써 타인에게 행위로 보여줄 때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한다. 행동하는 양심은 사실 손해를 볼 때가 많다. 양심이 하라는 대로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바르게 살았다면 그것만은 무덤에 갈 때도 자랑할 수 있음으로 행동하는 양심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하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로 대표를 뽑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의제를 결정하려고 투표하는데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어 양심의 소리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은 가치 판단을 투표할 때 행동하는 양심을 보이며 바른 투표를 해야 민주주의가 성숙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은 곧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 알면서 모른 척하며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한 일인지 가르치고 갔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늘 전진한다고 일기에 쓰셨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릴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을 위안 삼아, 또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 뒤에 숨어 눈감고 귀 막았던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갔다.

내 양심은 칼과 같다. 칼은 잘만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양심도 이와 같아서 깨끗함을 지킬 때는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양심을 속이면 남은 물론 자신까지 망치게 된다. 따라서 양심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우리는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양심에 따르는 행동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보다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빛과 소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

순간적인 눈에 보이는 이익에 굴하지 않고 참되고 떳떳하게 행동한 양심적인 행동에 존경과 찬사를 보내게 된다. 비록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참된 삶의 의미와 정신적인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심적인 행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행동하는 양심은 3대 질서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질서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이라 했다. 질서가 지켜지지 않은 곳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 것은 환경질서이며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도 환경질서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행동하는 양심이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고 주변 환경은 정리정돈이 잘되어야 하는데 알면서도 환경질서를 지키지 않고 남이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도 못 본체 무관심한 것은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며 환경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악의 편의 사람이다.

소득은 낮으면서 과소비를 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하며 자립할 생각은 않고 부모에 의지하려는 사람과 그러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것은 정신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며 악의 편의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11위권에 접어들었는데 선진국 국민이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는 국민이 되어야 하고, 행동하는 양심의 정치가들이 하는 한국의 정치가 되어야 하며 행동하는 양심의 기업가들이 기업경영을 하는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욕심 없이 빈손으로 간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준 용서와 화해 행동하는 양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며 먼 앞날의 통일된 조국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 농촌 인구 감소 "해결은 교육에 있다"

기 고

김 성 호 장흥군 장동면장

농촌 인구 감소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전남의 4월 출생아 수는 7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가 감소했고, 반면 4월 사망자 수는 1,40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하는데 그쳤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무려 2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지방의 인구 유출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과연 농촌은 인구 감소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농촌 지역만의 잠재력은 없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책, 귀농귀촌 정책 및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농촌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농촌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농촌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요는 높아져서 도시로의 주거 이전 등 도심 집중 현상을 가중시키고,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농촌 교육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까지 할 수 있을까. 공직생활 30여 년 이상을 하는 동안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되는 걸 지켜봤고, 또 앞으로도 통폐합은 생겨날 것이다.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2에서 1로 줄어든다는 개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복지, 주민간의 심리적 유대감 상실 등 많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경남 함양군의 서하초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였으나 학교 교직원, 지역 주민, 졸업생들로 구성된 '서하초등학교 학생 모심 위원회'를 만들어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학부모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니 2019년 14명이었던 전교생이 2년 만에 36명으로 증가하였다. 입소문이 난 지금은 귀농귀촌하려는 젊은 부부들의 문의가 많다고 한다.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즉 교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더 이상 농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이 안 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며, 경직된 학교 교육 체제보단 유연성 있고 개방적인 학교 교육 체계로의 전환, 학교의 특성화된 장점을 홍보하여 학생을 유치하는 등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다양한 교육 정책을 통해 벗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소통으로 '시민이 시정 중심에'

기 고

김 경 호 광양시 부시장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정서비스에서도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창구 운영이 증가하고, 각종 사업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등 코로나가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러한 기로 속에서 적극 행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통행정 추진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의 시정 방침 아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고, 시정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먼저,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광양시 공식 SNS를 운영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이끄는 등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광양시 SNS 전체 구독자 수는 지난해보다 7,276명 증가하였고, SNS를 통한 정책문의 3,362건, 시민 제안 664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 욕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소통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광양 해피데이','현장행정의 날','시민과의 대화','시정 공감토크'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과 자주 만나고 각 계각층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열리는 '광양 해피데이'는 시장실을 활짝 열어 시민과 직접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소통 공간이다. 지금까지 총 64회에 걸쳐 시민 1,892명이 참여하여 1,044건을 건의하였으며, 그중 73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자 행정을 변화시키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화요일은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한다.'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민원 발생이나 갈등이 있는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실시한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시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한 시민이 83.3%로 높은 호응을 보였다. '귀 기울여 경청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선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기자단인 주부 명예기자단과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기자단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시민과 행정기관을 잇는 소통 메신저로 활동하며 시민의 생생한 삶과 시정 주요 시책 등 광양의 다양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각계각층과 대면 간담회가 어려워지자 영상을 통한 비대면 간담회를 늘렸고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꽃길 조성 및 환경정화 활동, 어려운 이웃돕기 등에 시민 자생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민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소통은 어느 일방에 의한 통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소한 참여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의 연대의식으로 점차 발전하는 힘을 갖는다.

시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낡은 행정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비로소 많은 시정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은 아이디어 뱅크이자 행정 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만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열린 대화는 시민의 높은 시정 만족도로 이어지며 지역의 미래를 공유하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사회로 귀결된다. 이러한 소통이 광양시가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